

“군민 소득 높이고 청년 돌아오는 ‘희망의 천사섬’ 만들겠다”

무소속으로 3번째 당선 박우량 신안군수 민선 7기 구상

친환경농업 선도지역 육성·천사대교 개통 대비 교통체계 구축 ‘천사 섬’ 브랜드 부활...문화관광 홍보·특산물 판촉 적극 활용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만들어 주민 소득증대 기여

“군민이 잘 살고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 희망이 샘 솟는 천사섬 신안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박우량(63) 신안군수는 3선 군수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전국에 휘몰아쳤던 민주당 폭풍을 뚫고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그는 앞서 민선 4·5기 때도 무소속으로 신안군에 입성했다. 민주당 텃밭에서 무소속으로 3차례나 군수가 된 그의 저력은 ‘일 잘하는 군수’라는 평가 덕분이다.

그의 강점은 풍부한 행정 경험이다. 도 초출신의 박 군수는 지방4급(현 7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자치부 제도운영과장, 내무부장관 비서실장, 경기 하남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거쳤다.

앞서 두 번의 군수로 재임하면서 전국 최초로 공영버스제를 시행했고, 여객선 야간 운행, 천일염을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꾸는 등 군민 생활에 외닿는 정책을 추진, 군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탄탄한 지역기반을 확보했다.

박 군수는 민선 7기 신안군정 제1 목표를 ‘소득증대’로 삼았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군민 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신안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농어촌 자치단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소득기반 취약 등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며 “특히 어려운 현실은 소득문제”라고 진단했다. 청년이 농어촌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바로 소득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타개적으로 친환경 농·축산업과 수산자원을 전략적사업으로 육성해 군민의 소득을 높여 잘 사는 신안,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친환경농업 시책인 수매제도 개선, 학교급식 지원, 낙도민 유기농산물 지원 등을 발굴·지원해 신안군을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천사(1004) 섬’ 브랜드 부활도 선언했다. 천사섬은 1004개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성을 표현하면서도 풍요로운 미래를 향한 발전적·진취적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브랜드는 신안군정의 상징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홍보, 농수특산물 판촉 등 광범

위하게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파워풀한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내년에 자칭 ‘천사대교’ (압해-압태, 새천년대교) 개통에 대비한 육해상 교통체계 구축은 당면 과제라고 진단했다.

중부권의 공영버스 운행노선을 개선해 간선버스(시외노선)와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압태-남강-안좌-북호항을 확장 개발해 서부권과 남부권 5개 섬의 24시간 여객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거점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천사대교, 2020년 임자대교가 개통되면 지도-압해-중도-임자-자은-압태-안좌-팔금 등 북부권과 중부권 8개 읍·면을 연결하는 비금-추포간 연도교량, 남부권을 연결하는 비금-추포간 연도교량, 남부권(하의·신의·장산)을 연결하는 자라-장산-신의 연도교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국립공립위원회 심의에 막혀 있는 흑산공항 건설 문제도 지역주민의 새로운 대체 교통수단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를 확산, 다음 심의 때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조례에는 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지역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군수는 “에너지발전 사업은 대기업이

민선 7기 5대 균형 방침

-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신안
- ▲친환경 농수산물을 통한 잘사는 신안
-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편안한 신안
-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인간다운 신안
- ▲늘푸른 생태환경의 아름다운 신안

나 외부 자본이 막대한 개발이익만 가져가는 구조여서 난개발과 주민 투서,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30% 범위에서 참여해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에너지 개발이익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에게도 소득이 발생해 관련 부가가치가 늘어날 등 ‘에너지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오는 22~23일 이틀간 주민과 발전사업자, 금융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박 군수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의 힘찬 도약을 위해서는 군민의 협조와 성원이 필요하다”며 “군민 모두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행복한 미소가 넘쳐나는 살기 좋은 신안이 될 때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 재정 신속 집행 전국 최우수

목표액 대비 120% ...인센티브 5500만원 받아

신안군이 정부 ‘2018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특별교부세 5000만원과 포상금 500만원을 받게 됐다.

신안군은 신속집행 목표액 1606억원을 초과한 1929억원을 집행해 전남 지자체 1위는 물론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목표액 대비 120% 집행 실적이다.

그동안 신안군은 겨울철 기상악화로 연간 섬 지역 교통 통제일수가 100여일에 이르는 매우 열악한 자연환경과 방파제 사업 등 대형공사가 많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어려운 행정 여건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군은 정부 재정시책인 신속 집

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확정된 사업의 설계를 전년도에 미리 실시하고, 사업 대상자 조기 선정 및 신속한 부지 매입 등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 부진사업 재검토를 통한 이월사업 최소화, 준비되지 않은 사업 예산편성 억제 등 재정 효율화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재정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재정행정을 펼치겠다”며 “군민에게 희망이 샘솟는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신안 자은면에서 올해 첫 조생종 벼 수확

신안군 자은면에서 올해 첫 조생종 벼 수확했다.



지난 13일 신안군 자은면 김대중 씨 논에서 올해 첫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됐다. (신안군 제공)

15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은면 장고리 앞뜰에서 김대중 씨가 경작하는 6.8ha 논에서 올해 지역 처음으로 벼 베기를 시작했다.

올해 벼농사는 태풍이 없었고, 폭염으로 햇볕 쬐는 시간이 많아 조기 수확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자은면은 앞으로 조생종 벼 생산 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석 이전에 수확이 가능해 햅쌀로 차례상을 준비할 수 있고, 8월 중순께 벼를 수확하면 양파 등 이미오작이 가능해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신안군 자은면장은 “첫 조생종 벼 수확을 시작했다”며 “본격적으로 수확이 이뤄지면 9월 중순께 수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다문화가족 위한 다채로운 교육사업 눈길

신안군, 2개 언어 배우는 어학학습기 42가구에 제공

신안군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펴고 있다.

15일 신안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2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어학학습기를 다문화가족 42가구에 제공했다.

학습기는 모국어(결혼이주여성 모국 언어)와 한국어를 기초부터 고급까지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교재를 전자펜으로 누르면 언어가 변환돼 한국어 습득과 모국어(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신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학학습기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인 ‘한뫼 두뫼 나만의 킬트’가방 만

들기를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7회에 걸쳐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접하면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들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여주는 취업 기초 소양 교육이다.

전문강사로 참여한 김미경 나주천연염색문화관 자미공방 대표는 “신안을 처음으로 누르면 언어가 변환돼 한국어 습득과 모국어(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뽁뽁~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